

사 교적인 모임이나 파티를 위해 손님을 초대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차(茶)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례(茶禮)나 영국의 티파티(tea party) 등은 사교에 있어 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9월 6~10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제2회 토야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상 차림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제2회 토야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서 韓·英 여인 차상차림 선보여

티파티 문화

조선 사대부 여인 VS 영국 귀부인



조선 행다 예절교육 방편 활용

유교사상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다. 때문에 여성들은 집안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했다.

차문화도 마찬가지다. 남성들의 찾자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랑방이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며 "특히 행다 과정 곳곳에 배어 있는 예절정신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지혜와 덕성을 개발시켜주며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는 법에서부터 손님맞이, 상보 접는 법, 다란

안채나 후원등 집안서 만남 이뤄져

나 야의 정자에서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안채나 후원 등에서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을 갖고 자신들만의 차문화 꽃피웠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찾자리 문화 중 하나인 규방다례를 연구해 온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기능보유자)은 "규방다례는 손님초청을 시작으로 차를 내고 다식(茶食)을 먹으며 다담(茶談)을 나누고 손님을 배운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법 등 모든 순서에 일정한 형식과 예법이 담겨 있다.

'경기도 양반가의 흥파티'라는 기획전을 선보인 리빙컬처 대표 황규선 교수(속명여대)는 "후원의 연꽃을 연상시키는 연꽃과 연꽃모양의 백자 다기를 이용해 녹차를 즐겼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찾자리를 재현했다"며 "조선 여인의 품격과 삶의 여유를 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소설가 정형남씨 '천년의 찻씨 한알' 펴내

제1회 채만식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정형남씨가 천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차의 역사와 유래를 밝히는 소설 <천년의 찻씨

한알>을 펴냈다. 소설은 김 교수와 청운, 백공 등의 인물들이 화가에 들려 차를 대접받은 후 명명사

영사교·정보교류의 장으로

17세기 중국을 통해 차문화를 수입한 유럽은 홍차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차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티타임으로 사교문화를 꽃피웠던 영국은 하루 7~8회나 티타임을 가졌다. 특히 오후 2~4시에 이뤄졌던 애프터눈 티파티(afternoon tea party)는 귀족문화를 기반으로

중산계층 더 나아가 일반 서민층에게까지 전파된 것이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이 애프터는 티파티는 사교의 장이자 예술과 문화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영국의 애프터는 티파티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찾자리와 마찬가지로 예절과 격식

귀족문화 기반 푸짐한 티푸드 특징

로 발전된 만큼 화려하고 푸짐한 티푸드(tea food)가 곁들여진 것이 특징이다.

차는 다즐링, 우바, 기본 등을 주로 마시고 티푸드로는 스콘이나 샌드위치, 케익 등을 준비한다.

처음 애프터는 티파티를 시작한 사람은 베드포드 가문의 7대 공작부인인 안나 마리아(Anna Maria, 1788~1861)였다. 차를 즐겨 마셨던 그는 친구들을 초대해 응접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는데, 이것이 궁중과

이 중요시됐다.

애프터는 티파티 역시 상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초대 받은 손님은 찾자리에서 너무 사색이거나 정치·사회적인 화제를 피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으며, 차도구들이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선시대와 영국 여인들의 찾자리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글·사연=여수경 기자

주지 스님에게 김교각(696~794) 스님의 일대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교각 스님이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구도의 과정과 다성이자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애환, 차 정신을 보여준다.

정씨는 "김교각 스님은 마음 밭을 가꾸듯 가난하고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지장성지를 가꾸었고, 불씨 하나 일구듯 차시배지를 일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19

정약용으로 인해 초의선사 중앙 진출 영수합 서씨 등 여류 차인 많이 배출

이 시기는 다음 시대에 차문화를 꽃피울 인물들이 속속 태어난 때다. 박제가 이서구 정약용은 새로운 학문을 추구한 선비차인으로, 이들로 인해 우리 다사(茶史)의 중요한 기점에 이르게 된다. 특히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다산 기슭에서 지내며 후에 초의선사를 만나는 계기가 됐다. 다산의 <동다기(東茶記)>의 내용은 확실치 않으나 그의 다법(茶法)만은 자하에게까지 전해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영수합 서씨나 빙허각 이씨 등 여류 차인들도 많았다.

중국도 돈재 서곤이 차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고, 융정차가 널리 알려져 그에 관한 기록이 많다.

山北斗) 같은 차인이다. 초년부터 차를 즐기다 강진 유배 후 아암 스님을 만나 차에 깊이 빠졌다. 이후 초의를 가르치고 <동다기>를 썼다. 특히 그가 만든 다산계절목록과 다산계는 훗날까지 지속되었다.

- ① 박제가(1750~?): 중국에 네 번이나 다녀왔고 그곳의 문인들과 교류한 차인이다.
- ② 영수합 서씨(1753~1823): 홍인모의 부인으로 차인이었다. 자녀들 모두 차를 즐겼고 그의 다시 여러 편이 전한다.
- ③ 홍인모(1755~1812): 차를 즐겨 여러 편의 다시를 남겼다.
- ④ 이상계(李商啓)가 쓴 가사로 '월하평다(月下烹茶)'를 노래했다.
- ⑤ 빙허각 이씨(1759~1824): <규합총서(閏閣叢書)>를 썼다. 여기에 차를 생활과 연결한 다백희(茶百戲), 대용차, 다식, 다선교(茶仙姑) 등의 얘기를 담았다.
- ⑥ 정약용(1762~1836): 정치, 경제, 지리, 경학의 대가일 뿐 아니라 우리 차문화의 중흥에 태산복두(泰

- ⑦ 조수삼(1762~1849): 문집에서 해남에 황차가 있다고 했으며 다시 수편이 전한다.
- ⑧ 전주망(全祖望)이 쓴 글로 열두 가지 료차에 관해 기록했다.
- ⑨ 서곤(徐崐)이 쓴 글로 민중(閩中)에 있는 정세덕 차나무 두 그루의 향이 천하의 으뜸이라 했다.
- ⑩ 정유(程濟)이 향주 추심루에 살면서 쓴 융정차에 관한 얘기가 있다.
- ⑪ 정의중(丁宜重)이 쓴 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 차를 중심으로 향(香)을 가한다고 했다.
- ⑫ 장홍(張弘)이 쓴 것으로 이 글에 보이차 얘기가 실려 있다.
- ⑬ 왕응규(王膺奎)가 쓴 것으로 하살인향차라는 벽라춘(碧蘿春)에 관한 얘기가 들어 있다.
- ⑭ 청대 시승(詩僧) 초전(超全)이 지은 것으로 송대 이후 오미(五美)의 차 발전 정황을 내포하고 있다.
- ⑮ 왕맹현(王孟顯)이 융정차에 관한 한 것이다.
- ⑯ 석주산(石州山) 불매파(不昧派)의 시조다.
- ⑰ 산차 제다법이 설명된 책이다.
- ⑱ 대지유방(大枝流芳)의 지대아(池大雅)가 쓴 일본 최초의 전다(煎茶) 안내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한국	중국	일본
1750 박제가(林齊家)의 출생 ① ② 심사평의 활동 1753 영수합 서씨(俞壽閣 徐氏) 출생 ② 1754 이서구의 출생 1755 홍인모(洪仁模) 출생 ③	④ <심이록다조부서(十二重茶禮序)> ④ 1753 <돈재우필> ⑤ ⑥ <용정방다기(龍井訪茶記)> ⑥ 1755 <농원편람(農園便覽)> ⑧ <전남신아> ⑧ 1757 <유남속필(柳南續筆)> ⑧ ⑨ <오미다가(五美茶歌)> ⑨ 1762 <용정전문록(龍井見聞錄)> ⑩	1751 송평처항(松平治郷)의 출생 16 1754 <일본산해명물도회(日本山海名物圖會)> 17 1755 선과소각어(仙竈燒壺語) 1756 청만다화(靑灣茶話) 18

◎ 표는 약(about)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디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디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본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